

전남도, 민선 8기 첫 추경 ‘민생안정’ 초점

본예산 대비 8,920억원 증액 편성 코로나 직격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재원 배분

전남도가 지역경제 활력지원을 통한 민생안정에 주안점을 둔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전남도는 11일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예산 10조470억원 대비 8,920억원이 증가한 10조9,390억원 규모의 추

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재원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6,109억원, 보통교부세 1,287억원, 2021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1,297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힘든 소상공인·농어민 지원과 반도체, 해상풍력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재원 투입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 주요 편성 예산은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 810억원, 고부가가치 농수축산업 육성 2,170억원, 인구감소 대응과 행복 전남 실현 990억원, 전남문화·관광 육성시대 실현 440억원, 재해복구·지방도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에 4,510억원 등을 반영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사업인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유지 연구역비 6억원을 편성하고, 8.2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필요한 항만운송 인프라 확충 예산 40억원도 포함했다.

좋은 일자리와 직결되는 도내 기업유지를 위한 시설·임지보조금은 6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조선업 수주 회복에 대응한 인력 수급문제 해소를 위한 이주 정착금 지원비 6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라-우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른 농어업

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유 인상분 지원 사업 연장에 107억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비 395억원도 추경에 포함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도민 제일주의 행복전남 실현’을 위한 전남청년문화센터 건립, 청년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378억원을 반영했다.

전남 대표 행복시책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예산은 5억원을 증액해 올해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613억원 등도 추가로 반영했다.

이밖에 전남관광 1억명 시대 개막과 전남방문의 해 성공적 운영에 9억원, 2023년 순천만정원 박람회 기반조성과 성공개최에 79억원, 영호남 상생화합을 위한 영호남합대축전에 8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물가상승과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생활인프라를 개선하면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전남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우승희 영암군수가 11일 오후 영암군 서호면 영암통합미곡처리장(RPC)을 방문, 배영수 대표로부터 농협 쌀 수급 현황과 2011년산 조곡 수매 및 판매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쌀값하락 엄중, 지원책 마련하라”

영암 미곡종합처리장 점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통합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해 “쌀값 하락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벼 재고상황을 점검하고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예외사항을 수렴한 김지사는 “생산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쌀 수요 감소로 쌀값이 계속 떨어

져 벼 생산 농가의 여건이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다”며 “쌀 가격은 농가소득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배영수 영암통합미곡종합처리장 대표는 “지난해 농업인들에게 매입한 벼 가격보다 쌀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재고도 증가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지사는 “벼 재고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통합미곡종합처리장 등을 위한 도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인 쌀 육성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농협도 전남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

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고품질 쌀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도내 고품질 벼 재배를 확대하고, 수도권 소비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판매망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80kg당 22만7,212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10만 톤 규모 3차 시장격리 결정을 발표한 이후에도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8만원 선이 무너져 80kg당 17만9,404원을 기록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실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22일 독일에서 귀국한 내국인이 국내 첫번째 확진을 받으면서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고,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했다.

앞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숭이두창의 지역 내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법 교육과 검사능력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진단검사능력을 확보했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5월 유럽과 북미 등에서 이례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면서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

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지난 7일 기준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총 57개국에서 7,594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중동 이의 아시아지역은 한국 1명, 싱가포르 2명, 대만 1명으로 총 4명이 확진됐다.

원숭이두창은 감염되면 1-2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근육통, 오한, 림프절 비대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을 중심으로 발진 증상이 나타나며 몸의 다른 부위로 발진이 확산된다. 전용 치료제는 없으며,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 치료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전남농기원-천주교 광주대교구, 친환경농업 맞손

실천기술 개발·확산 협약

전남도농업기술원과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이 전남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생태환경 조성에 힘을 모은다.

11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에서 김희중 대주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생태환경농업연구소와 친생태환

경적인 농업실천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생태환경농업연구소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지원으로 지난해 설립됐다.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와 카톨릭 농민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을공동체 중심의 친생태환경적인 농업기술 개발 확산과 생태계 회복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농업·농촌의 활력증진 도모를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저탄소 유기농업 시범모델 개발 실용화’, ‘마을공동체 중심의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확산’, ‘지속 성장 발전 가능한 농업·농촌 생태계 회복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근산 기자

정기 브리핑

김승남 “지능형 산림 특화정보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 속초, 포항, 울진, 삼척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과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위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환경부와 기상청이 각각 ‘대기환경보전법’과 ‘기상법’에 따라 환경위성과 기상위성의 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처럼, 산림청이 운영할 산림위성도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불이나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으

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산림위성을 확보하게 되면 위성을 통해 관측한 정보와 플렉스, IoT 등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분석하는 지능형 산림 특화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상시적인 산림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쉬 수 있는 집이라는 이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쓸 것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